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
지원사업

2020

SU-대학혁신지원사업

웹소식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SU-대학혁신지원사업
2020 웹소식지

contents

HOPE CAMP | 작성자 : 이영현 4

MVP+ 교육 | 작성자 : 이영현 6

코딩교육과정 | 작성자 : 김예동 8

e-Portfolio SUtory | 작성자 : 남의정 9

국내 중독전문기관 실습 교육 | 작성자 : 이선하 11

지역사회 돌봄 학생참여형 삼육마을 프로젝트 | 작성자 : 김예동, 이선하 13

삼육토론대회 | 작성자 : 남의정 18

출결관리시스템 고도화 | 작성자 : 나상은 20

학생상담센터 자유공모전 | 작성자 : 양은솔 22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 | 작성자 : 양은솔 24

글로컬역량강화 프로그램 | 작성자 : 나상은 26

본 웹소식지는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재학생 홍보단인
「SU-PANEL」 구성원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살펴, 내용을
직접 구상 및 취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웹소식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HOPE CAMP

프로그램 소개

HOPE CAMP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단절되어가는 21세기 사회의 모습 속에서 무너져가는 '나'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크게 '개인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월-화, 수-목, 목-금요일로 1박 2일 신청을 받아 에덴관과 제명호 사이의 HOPE CAMP 본부에서 첫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활동이 이어진다.

시간	프로그램	내용
17:00 ~ 17:3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체크인 ✓ 물품안내 및 지급 ✓ OT 진행
17:30 ~ 18:30	'나 혼자 저녁식사' 및 정비	✓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벗어난 나만의 식사시간 ✓ 저녁식사를 하며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보는 조용한 명상시간
18:30 ~ 20:30	담요 시네마	✓ 야외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감상문을 적어보는 '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20:30 ~ 22:30	'별이 빛나는 밤'에 불멍	✓ 화로 앞에 둘러앉아 처음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갖는 시간
23:00 ~ 7:00	'하루를 돌아보며' 및 취침	✓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개인의 시간 ✓ 제공된 개인의 일기장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7:30 ~ 8:00	'나의 하루는', 명상산책	✓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 맑은 공기와 함께 제명호에 올라 명상하고 제공된 일기장에 하루의 다짐을 적어보는 시간
8:00 ~ 9:30	우리 함께 아침식사	✓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던 저녁식사와는 달리 이제 개인에서 벗어나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 ✓ 1박 2일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던 친구, 운영진과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 설문지를 작성하는 시간
9:30 ~ 10:30	뒷정리 및 '집으로'	✓ 개인물품 뒷정리 및 분리수거 ✓ 폐회식 및 기념촬영

참가자 후기
동물생명자원학과 19학번 신혜빈

저는 성적, 인간관계 등 외부가 주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유난히 걱정도 많은데 이를 해소할 생각도, 방법도 모른 채 바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HOPE CAMP에서 지낸 하룻밤 만큼은 내 안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모두 잊고 그 순간순간의 행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텐트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비로소 나에 대해 돌아보며 나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힐링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준 HOPE CAMP에게 감사하고 저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입니다.

운영진 후기
신학과 17학번 성희연

일단 HOPE CAMP를 진행하면서 캠핑이 마냥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텐트치고 불피우고 놀면 될 줄 알았는데 텐트 하나 불 하나 피우는 것도 다 너무 큰 일이더라구요. 그래도 매주 다른 사람들과 캠핑을 진행하면서 힘든 것보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 캠프는 항상 단체 속의 나에게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던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기에, 캠프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HOPE CAMP에서는 정말 '따로 또 함께'의 의미를 가장 많이 느끼게 해주었고 또 매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두 코로나 때문에 멀어지고 만남도 어렵지만 자기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함께할 때의 즐거움을 너무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MVP+ 교육

MVP+교육은 19학번부터 적용되는 비교과 졸업필수과정이다. 6대 역량(시민의식, 소통, 창의적사고, 자기주도, 글로컬, 나눔실천)을 주제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개발,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발된 프로그램을 19, 20학번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하지만, 이번 2020학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MVP+교육에서는 특별하게 학생들 외에 인성교육원의 직원들이 기획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번 MVP+교육 중 직원들이 기획한 4개의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을 실천으로 실행해보는 '환경교육 플로깅', 생명의 존엄성 및 동물권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고 캠페인을 기획해보는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자신의 모습을 찾고 타인에 대한 방법을 배워보는 '소통교육', 나에 대해 성찰하고 타인의 삶을 들으며 내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역할교육'이다. 다음으로 4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역할교육 활동 내용과 역할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 그리고 MVP+교육 담당 직원의 인터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MVP+교육 '역할교육' 소개

사람이 성장하며 갖게 될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교육이다. 본 활동에서는 MBTI 검사와 결과 해석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역할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과제를 수행하고, 전문가 및 인생 선배들의 줌(ZOOM) 강의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찾도록 도와준다. 20대의 시작에서 각자의 앞에 놓여진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활동의 핵심이다.

'역할교육' 참가자 소감
유아교육학과 20학번 곽재희

MVP+교육이라는 활동을 접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추천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게 된 것이였습니다. 역할교육이라는 활동은 MBTI 검사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니 선배님 한 분만의 20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알아볼 수 있는게 아니라, 매주마다 다른 선배님이 강의에 나와서 인생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 조언 등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명의 선배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앞으로 내가 하면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여러 역할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 MBTI 검사를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성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할교육' 참가자 소감
유아교육학과 20학번 임채원

MVP+ 역할교육은 제 자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한 가지 역할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갖게 되는 순간이 분명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는 자녀, 공부하는 학생, 누군가의 친한 친구 등 이렇게 수많은 역할들 중 몇 가지가 충돌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갈등의 순간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역할 교육은 삶의 여러 순간에서 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MBTI 검사와 해석 - 인생선배 '교수님'의 이야기 - 인생선배 '목사님'의 이야기 -

인생선배 '선배님'의 이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MBTI 검사와 해석 활동은 친구들과 장난삼아 해보았던 간단한 MBTI 검사를 넘어 전문적으로 스스로의 성격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해석되어 있는 검사 결과지로 저의 새로운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교수님, 목사님,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변의 가까운 가족 혹은 친구의 인생 이야기를 듣기도 쉽지 않은 현대에 타인의 삶 속 경험을 듣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겪어 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과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해보기도 하고, 미래를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MBTI 검사가 재미있어 보여 참여하게 된 이번 MVP+ 역할교육은 현재의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미래를 어떠한 방향으로 그려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 어쩌면 잊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에 대해 잠시 멈추어 돌아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담당자 인터뷰

1.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성교육원 MVP+교육 담당자 유수아입니다. 저는 인성교육원이 학생들과 학교의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프로그램들을 기획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업 외에 접하는 활동들로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 원래 MVP+교육은 학생들이 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직원분들이 소통교육, 환경교육 플로깅, 역할교육,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MVP+교육은 인성교육원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는 졸업필수요건의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항상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역량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통교육, 환경교육, 역할교육, 생명존중교육 모두 중요한 주제이지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잘 하지 못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 MVP+교육을 진행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는 건 언제나 긴장되는 일입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요. 교육의 효과성을 생각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잘 하고 있는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자의 자리는 언제나 걱정과 후회가 있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더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돼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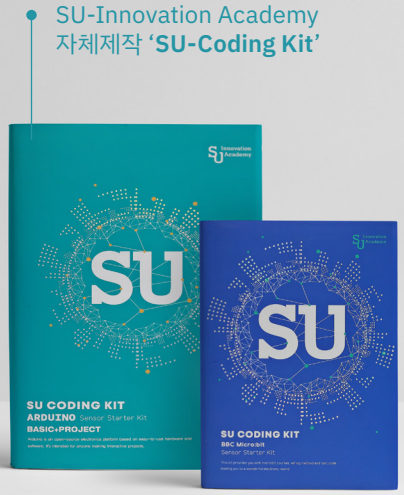
4.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면을 하지 않고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진행자로서 진정한 보람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생기는 것 같은데,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5. 앞으로 MVP+교육을 기획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VP+교육은 여러분이 친구들과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무시하지도 평가하지도 않아요! '이거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같은 고민이 그저 고민으로만 끝나는 것보다 저희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

ICT 인재양성, 블록코딩으로 쉽게 배워요!



SU-Coding Kit

"누구나 쉽게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용 키트"

SU-Innovation Academy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마이크로비트(BBC Micro:bit)와 아두이노(Arduino)를 기반으로 리패키징 된 2종의 키트를 제작하였다. 마이크로비트 키트는 마이크로비트 보드와 스위치, 센서, 조이스틱 등의 입력장치와 LED, LCD, 릴레이, 스피커, 모터 등의 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블록코딩의 방법을 활용해 프로그램 코딩의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아두이노 키트 역시 기본 보드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C언어를 배울 수 있는 키트이다. 특히 구성품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원격제어 조명,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다.

SU-Coding Kit를 활용한 '휴먼 ICT 연계전공' 수업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ICT 기술을 자신의 전공분야에 응용하는 융합형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 ICT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관련 전공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ICT 전공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4학기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총 4학기의 체제로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인정되고, 36학점을 이수하면 융합기술학사 학위가 주어진다. SU-Innovation Academy는 'ICT 융합 비즈니스, 지능형 빅데이터 처리, ICT 서비스디자인, 인공지능(AI)'의 네 개의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SU-Coding Kit 사용자 인터뷰

과목명 : 프로그래밍언어I _ 경영정보학과 2학년 김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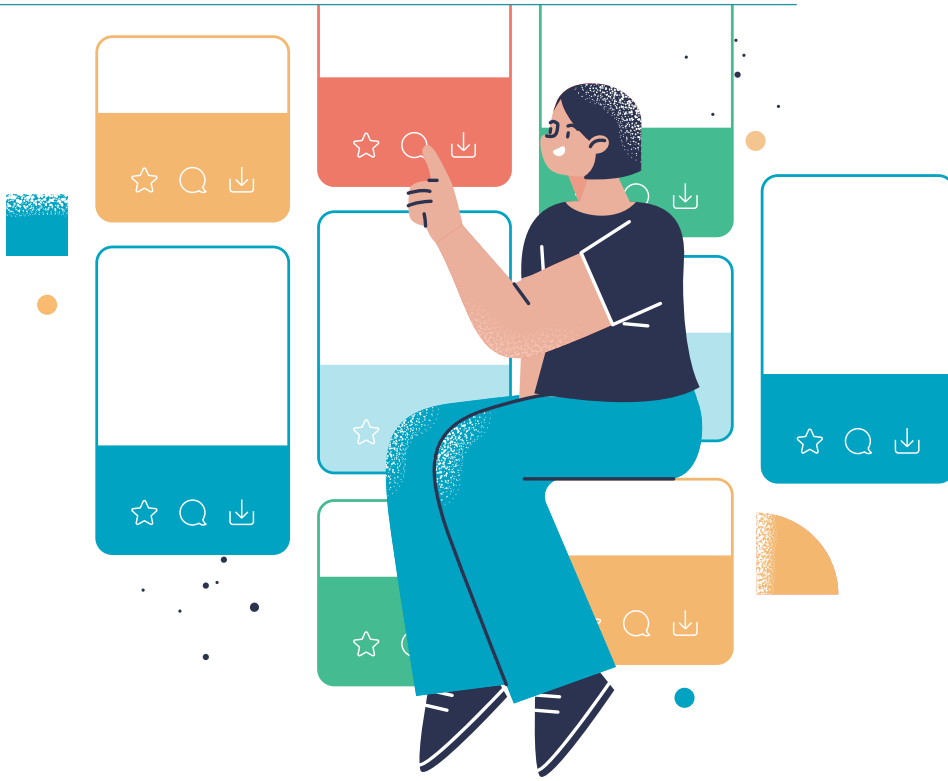
Q. '프로그래밍언어I'의 과목을 수강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작년 겨울 우연한 기회로 워밍코리아가 주최한 코딩캠프를 통하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코딩교육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블록코딩을 통하여 코딩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었는데, 당시 저는 코딩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16시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끝에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자연스럽게 코딩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프로그래밍언어I'이라는 PBL 중심의 실기수업을 알게 되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Q. 본 과목에서 'SU-Coding Kit'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제가 수강한 교과목은 수업 전반에서 코딩키트를 활용하였고, 매주 블록코딩을 통해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교수님께서 내어주신 과제를 이행하는 방식이 아닌, 주어진 큰 틀 속 저희의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기말과제로 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초음파 센서와 서보모터를 활용하여 '자동 분사 손소독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코딩을 처음 접한 제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코딩키트를 통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코딩이라는 점에 있어 비교적 쉽고 흥미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나 비전공자들에게 코딩키트를 추천합니다.

e-Portfolio SUtory 수토리



SUtory는 온라인 학습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삼육대 학생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이다. SUtory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 대외활동, 과제 등을 공유하고 SUtory를 활용한 공모전에 참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SUtory의 쓰임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에 SUtory 운영자를 직접 만나 SUtory의 역사부터 기능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보았다.

SUtory 운영자 인터뷰

1. SUtory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SUtory는 삼육대 학생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국내 최초의 학생 참여 주도형 온라인 포트폴리오입니다. SUtory는 타학교에 있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작성 플랫폼과는 달리 다른 학우들과 공유가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SUtory가 처음 기획되고 실행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SUtory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SUtory가 개발되기 전에 우리 학교는 온라인에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게시하고, 이를 다른 학우들과 공유도 할 수 있는 우리 학교만의 온라인 포트폴리오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SUtory는 삼육대학교 재학생들이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 시점에서 개발되었으며, 이후 더 많은 재학생들을 사전 평가단으로 모집하여 오류 및 수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3. SUtory를 통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나요?

주 기능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혁신단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학금, 상장, 기념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tory에는 커뮤니티 기능도 있는데, 아직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추후 수정 및 개발을 통하여 삼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SUtory는 팔로우 기능이 있어 관심 있는 계정의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으며, 저장 기능을 통해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SUtory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들이 모두 썸네일로 먼저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정보를 업로드할수록 정보가 방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SUtory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SUtory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4. SUtory 포트폴리오 공모전, SUtory 학습노트 공모전 등 SUtory를 이용해 여러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이 공모전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SUtory 포트폴리오 공모전'은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먼저 1학기에 진행되었던 '학습노트 공유 공모전'과 '온라인강의 학습팁 공모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갑작스런 비대면 강의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이에 빠르게 적응하여 학습방법을 터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나만의 학습노트와 학습팁을 공유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공모전', '동아리 홍보 공모전', '코로나19 극복 이벤트', '중간고사 공부 인증 이벤트'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모전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Utory를 200% 활용하는 학우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학우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가지 SUtory 이용 팁을 배울 수 있었다.

SUtory 포트폴리오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인터뷰 약학과 18학번 나상은

1. SUtory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SUtory를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학교 홈페이지의 SUtory 공모전 홍보 게시물을 통해 SUtory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SUtory를 통해 많은 공모전이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SUtory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 포트폴리오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서 작성, 자기 PR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의의를 갖고 공모전에 참가였습니다.

3. 어떤 내용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나요?

3학년 1학기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한 것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했습니다. 삼육 도서 100선 프로젝트, 그린교육 참가 공모전, 독서 톡톡 공모전 등 여러 공모전에 참가하고 수상한 내용들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제가 한 학기동안 활동안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또 이를 다른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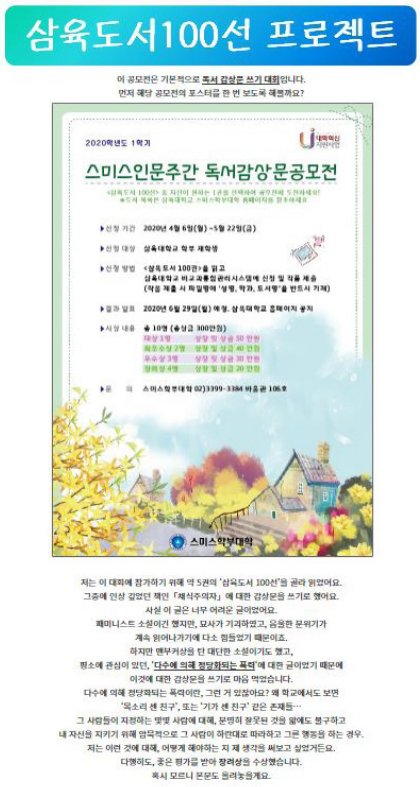
4. 다른 학우들에게 SUtory를 잘 활용할 수 있는 TIP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첫째, SUtory를 이용한 활발한 SNS 활동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사용해 본 학우일수록 SUtory의 SNS 기능을 더욱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 활동을 통해 본인만의 채널을 제작하고 다른 학우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SUtory를 통해 자신만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공부만으로는 무한 경쟁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어,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SUtory에 또다른 콘텐츠로 제작하면서 제작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SUtory를 활용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Utory에 일기, 독후감 등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다보면 글쓰기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포트폴리오 작성 외에 SUtory의 어떤 기능을 사용해보셨는지, 또 그 기능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학우들의 콘텐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우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생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6. SUtory를 이용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직 초창기인 만큼,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공모전 등이 더욱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SUtory만의 내부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학생들의 참가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한 자유도도 높아지고 사용에 대한 리워드도 충분히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중독전문기관 실습

우리 사회를, 가족을, 사람을 망치는 중독, 함께 예방하고 극복해요!

국내 중독전문기관 실습의 목적은 중독이론 교육만으로는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장실무를 경험케 함으로써 중독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합적인 사고와 실무능력을 갖춘 사회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중독의 개념 및 기본 원리를 경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치료적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국내 중독전문기관 실습 활동과정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참가 학생이 선정되면 실습기관에 따른 복장, 실습 일지 작성법, 기타 지침사항 등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이후 참가자는 2주 동안(80시간) 중독전문기관에 출석하여 기관 담당자의 지도에 따라 실습에 참여하게 되며 수행한 내용을 일지에 작성한다. 실습이 종료되고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에 출석부와 일지를 제출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한편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에서는 다음 학기에 진행될 실습 프로그램을 위해 현장 지도자 평가서와 참가 학생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개선 사항을 확인한다.

기관에 따라 진행하는 활동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이론교육, 사례연구 수행, 치료적 활동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참관, 토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중독전문기관인 만큼 주요 활동은 중독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재활치료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습생은 현장에서 적용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습득하게 된다.

주로 중독치료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약물치료를 비롯한 상담치료 및 집단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내실 있는 중독전문기관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참여 학생 만족도이다. 만족도 조사에는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알콜중독전문병원인 진병원이 선정되었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론만으로 접했던 상황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치료 대상자와의 대면 상황을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내면적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는 것을 느끼면 2주간의 실습 기간을 마칠 때에는 짧은 라포 형성 기간에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학생들이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고 내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교육생으로서 치료 프로그램을 참관하는 것이 아닌 치료 대상자의 내면적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성찰하는 경험은 실습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적 의사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로는 중독 분야의 실무전문성 증진과 학생 개개인의 취업역량 강화이다. 무엇보다도 본 프로그램은 교과목(중독현장실습II)과 연계되어 실습 과정을 모두 마치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하다.

참가자 인터뷰
상담심리학과 16학번 금진주

Q.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중독심리 연계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필리핀 비쿠탄에 위치한 마약중독자 수용소로 봉사대를 다녀왔는데 한국에서는 마약중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했고, 중독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세미나를 듣고, 프로그램 참관을 합니다. 마약중독자와 그들을 상담해주시는 상담사분과의 면담도 진행합니다. 예방 교육도 받고 다르크라는 재활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마약 중독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마약중독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주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교육하는 강사를 많이 배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프로그램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마약 중독자라고 해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와 같은 거부감을 가지기보다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어떤 따뜻함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부탁드려요!

A. 마약은 정말 무서운 약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순간의 쾌락이 아닌 자아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중독연계전공 과정을 비롯한 중독전문기관 실습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이 특성화하여 개발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학생이 많아 늘 아쉽습니다. '경험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다만 수업료가 지나치게 비쌀 뿐'이란 말이 무색하게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중독 이론교육을 뛰어넘어 현장의 경험을 쌓고 싶다면 매학기 진행되는 중독전문기관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에 ‘돌봄’을 배달합니다.

지역사회 돌봄 학생참여형 삼육마을 프로젝트

삼육마을 프로젝트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팀 프로젝트로 개발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창업모델로 만들어 창업기회에도 도전할 수 있다. 현재는 노원구 중계 2, 3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삼육마을 프로젝트 구성 인원

① CM의 역할

1) 노원 돌봄 SOS센터에서 파악한 Needs에 따라 서비스 프로젝트 개발
2)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여 팀을 형성하고, 책임감과 리더십을 토대로 서비스 실행
3) 서비스 개발 전 돌봄 스터디와 워크숍을 통해 돌봄에 대해 이해

② 팀원의 역할

1) CM이 개발한 서비스의 팀원으로서 함께 서비스 참여 및 제공
2) 서비스 실행에 앞서 돌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팀별 돌봄 스터디 진행

③ 서포터즈 역할

1)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교육과정 기획 및 진행 (워크숍, 돌봄·창업특강)
2) CM과 매칭 하여 서비스 개발에 참여 및 컨설팅
3) 지역사회에 직접 돌봄 서비스 홍보
4) 담당 팀의 일정표 제작 및 서비스 일정 관리(서비스 요청 메일의 수신을 확인하여 서비스 확정 및 CM에게 전달)
5) 인성교육원 자체서비스 운영
   대표 서비스 : 인콩나들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여행 &나들이 서비스!”

삼육마을 프로젝트의 참여혜택

삼육마을 프로젝트는 19학번과 20학번의 졸업 필수 과정인 ‘MVP+2.0’의 이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있다. 첫째,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되어 자신이 실행한 서비스 시간만큼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사회공헌’ 교과목의 봉사 시간으로 입력이 가능하니 잘 활용해보자! 둘째, 서비스 활동 시 해당 일에 대한 교통비와 서비스 횟수에 따른 근로비가 차등 지급된다. 즉 서비스 횟수가 쌓일수록 근로비의 지급이 많아지니 성실히 활동하여 보상을 받아보자! 셋째, 활동복과 명찰을 제공한다. 돌봄 제공을 위한 편한 활동복과 명찰을 착용함으로써 소속감과 사명감을 더해보자! 마지막으로 삼육마을 프로젝트는 한 학기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활동 팀을 시상한다. 상금과 더불어 노원구청상과 삼육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어 보자!

“돌봄을 실천하며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참여 안한다고?!”

프로젝트 CM 인터뷰
떴다! 삼대리
화학생명과학과 4학년 윤세영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건강 즙 배달!"
건강 즙, 건강 보조식품을 어르신의 댁으로 배달하고 말벗활동을 하는 서비스

Q. '삼육마을 프로젝트'의 CM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누군가 기획한 봉사 활동을 참가해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마을 프로젝트 포스터의 내용을 봤을 때 신선함과 흥미를 느꼈고, 보람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게 되어 CM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떴다! 삼대리' 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독사로 인한 사망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독거노인 분들의 문제를 직면했고, 수혜자분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 독거노인 분들의 건강을 챙겨 드릴 수 있는 녹즙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단순히 녹즙 배달뿐만 아니라 안부 확인 및 말벗 활동을 함께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이 부분은 모든 삼육마을의 팀들이 공통되게 어려웠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혜자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셔 방문 자체를 꺼려하셨고, 취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떴다! 삼대리'팀은 서비스 실행 계획을 수혜자분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격상 후에는 우유통에 전달을 하거나 최대한 말벗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안부 확인만 하는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말벗 활동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직접 엽서 편지글 및 로고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다른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인가요?

A. 첫 서비스 시행을 나갔을 때 절반 이상의 수혜자분들이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문을 열어 주시지 않으셔서, 문고리에 포장한 녹즙을 걸어둔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굉장히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상황이 점차 좋아졌고 수혜자분들과 잦은 안부 확인을 통해 친근감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첫 서비스 시행 때는 얼굴을 뵙지 못했던 수혜자분들이, 현재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차를 주시는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수혜자분들과 서로 노력을 통해 가까워졌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프로젝트 초기에는 수혜자분들의 신청 인원이 8명이었지만, 두 달 후에는 12명으로 증가하는 정량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분들과 안부 확인을 통해 친밀감 형성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실행 초기에는 수혜자분들의 서먹한 느낌과 부담스러운 시선을 느꼈다면, 서비스 활동을 진행할수록 서로 친근감을 느끼며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수혜자분들에게 큰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느꼈고, 앞으로도 더불어 가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순이네 문방구
영어영문학과 3학년 박세인

"내가 만든 제품으로 여는 나만의 문방구!"
어르신과 함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비즈 악세사리를
만들어보는 서비스

Q. '삼육마을 프로젝트'의 CM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돌봄과 봉사의 의미가 깊은 삼육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육마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만든 나만의 돌봄 봉사를 기획하고 실제로 그 돌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저에게 크게 와 닿아 CM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순이네 문방구' 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실제로 삼육마을 프로젝트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소, 세탁, 배달 등 정말 수혜자분들께 필요한 의식주 분야에서의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청소, 세탁, 배달 등 집안일들과 달리 그것들 외에 다른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을 피하고 수혜자분들께 꼭 필요한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등을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나온 서비스 분야가 수혜자분들의 '경제적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이었습니다. 어르신 또는 장애인분들의 손으로 직접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취미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의미 있고 정성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됩니다. 그렇게 그 수익금을 제품을 만든 수혜자 분에게 전달해 드려 경제적인 지원을 돕는 순이네 문방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Q.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장시간동안 한 공간에서 함께 제품을 만들어야하는 특성을 지닌 서비스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 저의 서비스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혜자분들게 순이네 문방구를 경험시켜드리고 싶은 데 상황이 좋지 않아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방향을 조금 바꿔 꼭 집에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부스를 열어 수혜자분들이 직접 집에서 혼자 제품을 만들어보실 수 있게 순이네 문방구 키트를 제공하고 매뉴얼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Q.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인가요?

A. 순이네 문방구의 재료를 들고 수혜자분을 찾아갔을 때 저의 아무런 설명 없이도 제품을 뚝딱 만드셨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혜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 뜨개질, 공예 등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드리고 옆에서 꼭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제품을 잘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편견이 있었던 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Q.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는 돌봄과 봉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 어떤 일을 기획하고 그것을 연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과 돌봄 봉사 두 가지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만의 돌봄 프로그램을 기획해본 것이 저에게 있어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 기획한 서비스인 만큼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쏟아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것 같고, 어려워 보이던 돌봄을 저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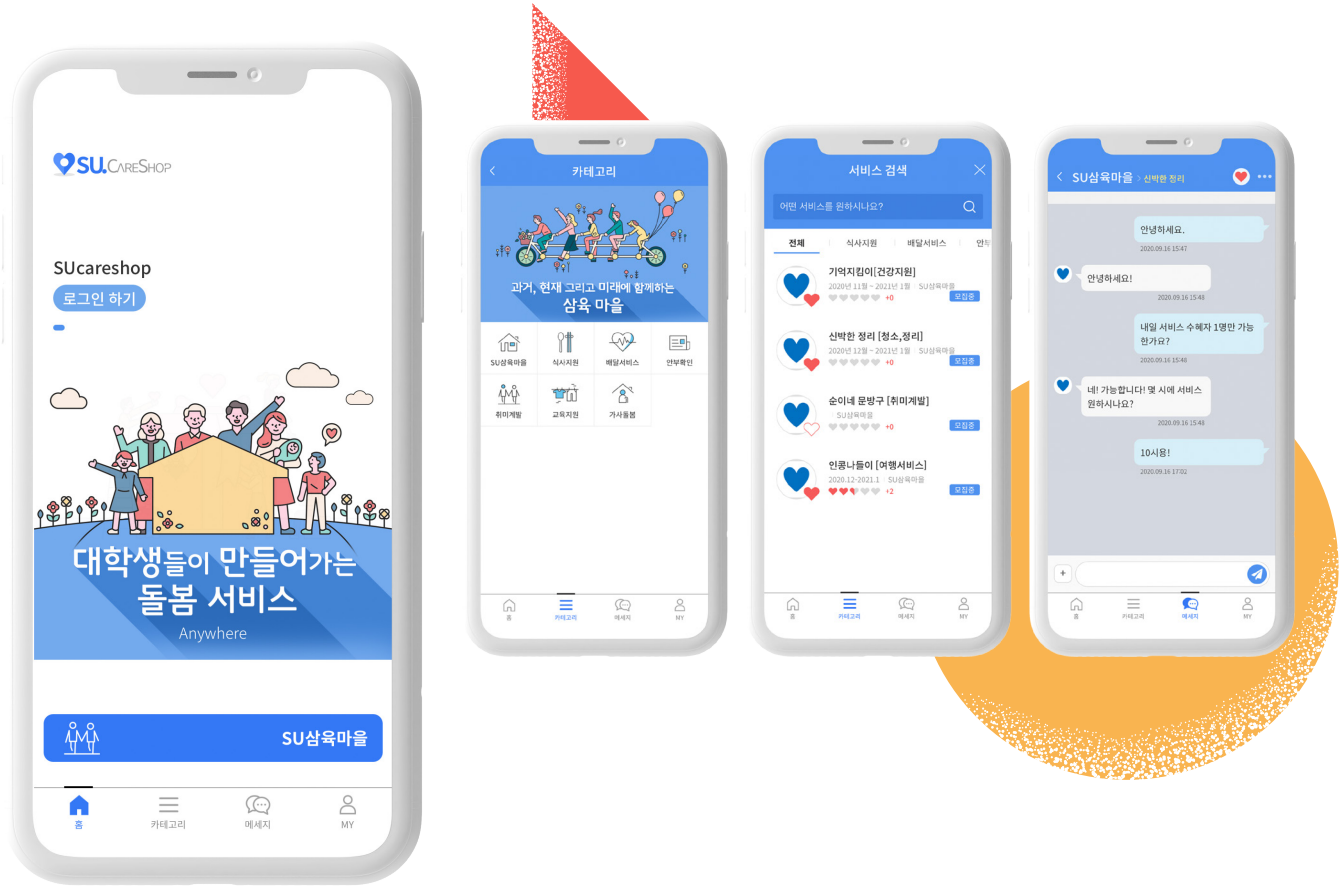
삼육마을 프로젝트와 창업과의 연계 활동

삼육마을 프로젝트는 처음에 '돌봄 경제'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 사회봉사 교육이 아닌 돌봄 경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돌봄 경제'보다 '돌봄 윤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창업과의 연계보다는 기본 바탕을 우선순위로 두어 진행하게 되었고, 올해는 돌봄 윤리와 돌봄 경제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을 것 같아 창업동아리 연계활동을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된 서비스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들을 개발하기 위해 초반 창업 관련 교육, 창업과 관련된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삼육마을 프로젝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교육부터 창업과 연결시키게 되었다.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업특강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개발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불세탁 서비스를 진행하는 '드림세탁'팀은 개발한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수요를 얻기 위해 창업 동아리도 연계하여 신청하였다.

담당자는 "이 활동의 기대효과로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라고 생각하는 틀에 갇혀 '수동적인 사회봉사'가 되기보다, 자기 주도형 사회봉사를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봉사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기관 중심의 사회봉사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혜자 중심의 사회봉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창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돌봄 경제를 바탕으로 단순 사회봉사에서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적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돌봄 경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육마을 프로젝트 우수 활동팀 1등으로 선발된 '드림세탁'팀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이번년도에는 서비스 제공방법에도 큰 변화가 시도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인터넷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수혜자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의 편리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SU-돌봄숍'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 것이다. 기존의 학생숍 서비스는 학생들이 월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가능 일자,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수혜자가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여 주문서를 작성하고, 예약이 확정된 후 진행하였다. 변화되는 서비스 제공방법은 'SU-돌봄숍'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예약 및 확정하고, 제공한 후에는 리뷰도 남길 수 있게 된다. 흔히 배달앱을 통해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받는 것처럼, 삼육마을 프로젝트의 돌봄을 조금 더 편리하게 주문하고 돌봄을 배달해 드리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은 1차년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변화된 서비스 신청 및 제공 방법을 적용 및 배포 중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수혜자 및 동의하신 공무원분들에게 SU-돌봄숍에 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제공자로서 어플 사용법을 교육받게 된다.

앞으로는 서비스의 개발 및 생성, 피드백들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학생숍 제공 포트폴리오도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SU-돌봄숍'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여 사회적인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삼육마을 프로젝트는 '돌봄'에 관해 생각해보지 못한 물음을 던져줄 뿐 아니라 대학생활과 인생에서 접하기 힘든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많은 재학생들이 삼육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한 발짝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 모두는 돌봄을 받고 자랐고, 돌봄을 받아야만 한다.

"돌봄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삼육마을로 놀러오세요!!"

삼육토론대회

지난 11월 20일, 27일 총 2회에 걸쳐 삼육토론대회가 개최되었다. 삼육토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소통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소통 및 토론 역량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토론대회의 논제는 <동물복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육식을 금지해야 한다>로,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인 채식과 육식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서면으로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4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본선을 진행했다. 각 팀은 찬성, 반대 입장의 내용을 모두 준비하였고 어떤 입장에서 참가할지는 대회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가림막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회에 최선을 다했다.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24년차 채식남, 육식녀 팀'의 김의민, 양소영 학우를 인터뷰하였다.

대상 수상자
'24년차 채식남, 육식녀 팀' 인터뷰

1. 삼육토론대회에 참가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느 날 동기였던 저희 둘은 함께 기숙사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 점심에는 밀고기가 나왔는데, 24년간 고기를 즐겨먹던 친구(양소영)는 밀고기의 맛에 의문을 품었고, 24년 동안 채식을 한 저(김의민)는 밀고기정도면 충분한 대용품이 되지 않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시간 내내 저희는 육식과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몇몇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간간히 채식과 육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토론대회의 주제가 채식과 관련되어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고, '우리 그동안 이야기 했던 것을 정리해서 한 번 나가보자'는 서로의 뜻이 맞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이런 발전적 토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주제 또한 흥미에 부합하여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2. 삼육토론대회를 참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대회 개최가 11월 말이었지만 빠르게 준비하고 자료가 보이는 대로 규합하기로 합의한 저희는 중간고사 이전부터 격주 간격으로 모여서 자료를 합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가면서 토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사들과 사전, 책 등을 참고하면서 채식과 육식에 대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삼육토론대회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토론의 주제는 상당히 학교의 정책,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미션스쿨에 대하여 가지고 있을 편견과 논란들에 대하여 대면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4. 삼육토론대회를 하면서 얻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토론대회를 진행하면서 얻은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식을 했던 팀원(양소영)은 육식에도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채식을 하면서 살았던 저는(김의민) 채식이 육식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토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방향으로 인류의 식생활이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식과 채식,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이 아니라 옳은 육식과 채식이 공존하고 발전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또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사소통 기술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의 약점에 대한 인정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함께 규합되어야 상대의 감정과 논리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로 붙었던 팀들도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며 대회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5. 어떤 학우들에게 삼육토론대회를 추천하시나요?

· 어떤 한 분야에 대하여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우들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쪽만 볼 수 없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고 공격과 방어를 준비하게 됩니다.

·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학우들
토론의 주제들은 다양한 학문과 현상들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주제들이 토론의 주제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의 견문을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논리적인 화법을 구사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학우들
말 한마디면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듯,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말하기가 필수입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며 습득할 수 있습니다.

출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선진화된 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출결관리시스템 개선 작업 진행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 강의 출석 시간에 대리 출석이 이뤄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심심찮은 일이었다. 드라마, 영화에서도 결석한 친구나 선배를 대신해서 한 학생이 교수님 몰래 목소리를 바꿔가며 출석을 부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광경을 보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의 출결관리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석은 대부분의 강의에서 일정 부분 점수로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엄정한 출석관리는 학생들의 형평성과 성적 산출의 객관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석관리의 중요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수님들의 경우 출석 관리를 통해 장기 결석자와 같이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우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사 상담을 통해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등 학생이 느끼는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출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시스템 기반의 출석관리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출석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계획이다.

실제로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출결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2018년에는 SU-Talk을 이용하여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출결관리시스템인 'SU-출석체크'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실제 출석을 한 학우들만 일정 시간 내 출석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위치 인식 기술인 '비콘(beacon)'까지 접목했기 때문에 단순히 출석을 한 시간만 체크한 것이 아닌 학생들의 실제 위치까지 체크할 수 있는 고도의 출석체크 기술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U-출석체크' 시스템 상의 출석용 QR코드는 30초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엄정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출결관리시스템을 토대로 개선 중인 우리 대학의 출결관리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발 방향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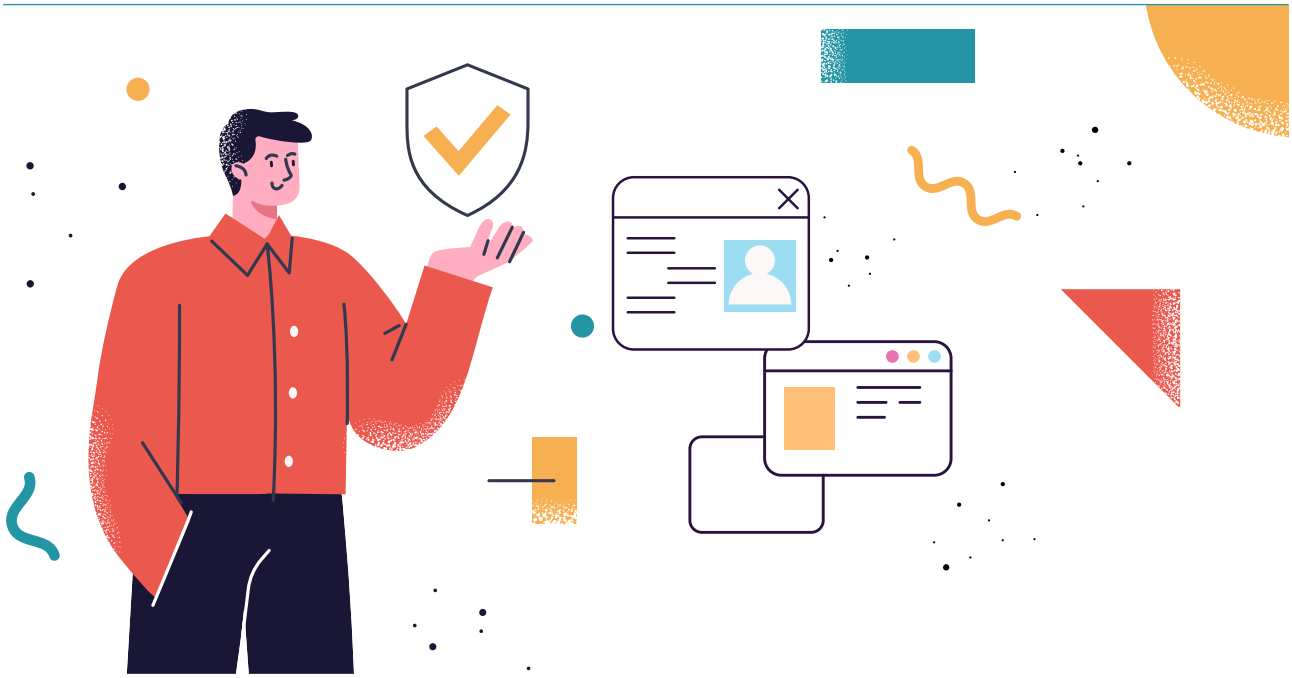
1. 비교과 프로그램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

2. 출결 현황 관리시스템 개선

- 실시간 강의 현황 조회
- 요일별 강의 현황 조회
- 부정 사용 모니터링
- 장기 결석자 관리
- 휴/보강 현황 조회
- 강의실 현황 조회

3. 커뮤니케이션(SU-Talk) 기반 온라인 수업 지원 시스템 개발

- 수업정보 연동을 통한 수업별 채팅방 생성
- 수업별 채팅방 생성 관리 기능
- 친구 관리 기능 개선
- 수업 관련 정보 조회
- 채팅방 관리
- 활동 현황
- 통계 관리



위 기본적인 개발 방향은 앞으로 학생들의 편의는 물론이거니와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수님들의 학습 지도에도 많은 진전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단순히 출석체크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서 기능을 구현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다기능 콤팩트 시스템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의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대학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강의와 달리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은 관계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곤 했었다. 무엇보다도 일정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체적인 계획 관리에 의존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상, 시스템적으로 출석체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니즈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만일 이번 출결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율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자체 커뮤니케이션 및 출석체크시스템인 'SU-Talk'을 비롯하여 온라인 포트폴리오인 'SUtory'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다양한 편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특히, 컴퓨터 위주의 학사 관리에서 모바일과 컴퓨터가 함께 통용되는 편의성과 기능성이 증진된 시스템을 구축하며 학우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기존에 구축되었던 사물인터넷(IoT) 인프라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출결관리가 연동된다면 이를 통한 효율적인 학사 운영 및 교수, 학생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대학 출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학우들의 공정한 학업 평가가 이루어지고, 좀 더 편안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혁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담당자 한마디

본 출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는 출결관리 업무의 신속, 신뢰, 효율성을 제고한 프로그램입니다. 개발의 고도화를 통하여 실시간 수업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편리한 출석체크로 학생 관리를 극대화하였으며, 다양한 통계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고결석계가 연동되도록 학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결석 학생들의 관리가 용이하며, 출석미달자의 성적 입력을 방지하는 등 보다 첨단화되고 선진화된 학생 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학생들에게 학사 시스템 만족도 향상과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상담센터 자유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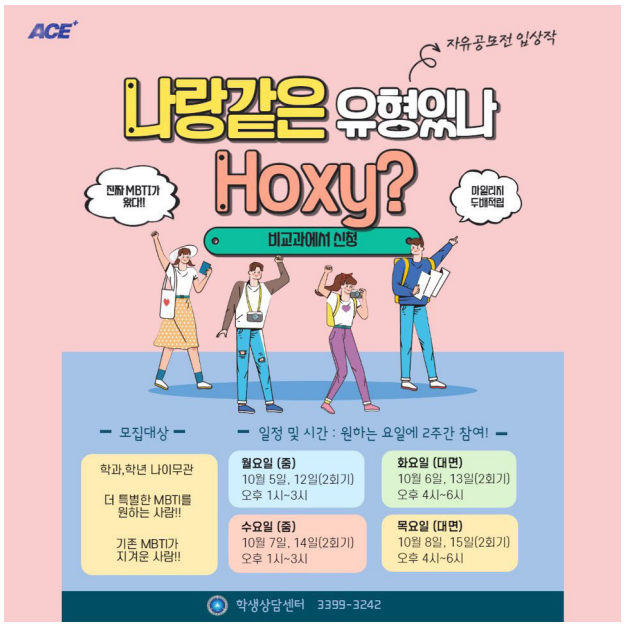
학생상담센터 자유공모전은 학생상담센터 관련 자유 주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캠페인, 특강, 홍보방안, 학생상담센터 이용 증진 방안, 코로나19 극복 프로그램,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재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육대학교 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학생상담센터 자유공모전의 총 상금은 400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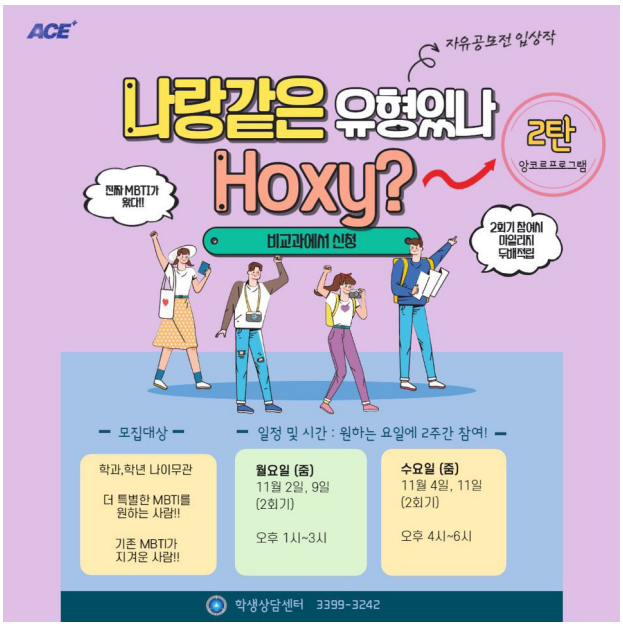
실제 이번 자유공모전 입상작의 기획안에 따라 '성격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나와 너 프로그램(MBTI 성격 유형 검사)'이 대인관계에 관심 있는 삼육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MBTI 검사를 통해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온라인 집단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ZOOM을 통해 주 1회씩 2회기로 진행되었다.

10월 약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참가한 'MBTI 나랑같은 유형있나 혹시?' 프로그램 이후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여서 11월에 2탄(앙코르 프로그램)으로까지 진행되기도 했다.

'MBTI 나랑같은 유형있나 혹시?'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상담센터 선생님의 말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학생상담센터 자유공모전을 진행했었는데 입상작 중 'MBTI 나랑같은 유형있나 혹시?'라는 프로그램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보통 홍보를 한 달 전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참여자를 모집하여야 하는데 1시간만에 선착순 마감되어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같은 주제로 여러번 진행했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MBTI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제작하고 참여까지 이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있고 인상깊었습니다.





학생상담센터 자유공모전 입상자 인터뷰
상담심리학과 19학번 박지윤, 신유나, 이예은 학생

① 어떤 아이디어(주제)로 자유공모전에 참가하셨는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려요!

학생상담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학생상담센터의 주목적인 상담에 대해서 학생들이 마음 편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학생상담센터라는 곳을 알리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어요.

솔로몬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이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학생상담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구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엔 자연스럽게 집단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지금의 나에겐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사람들과의 놀이를 통해 찾아가는 내용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② 이번 학생상담센터에서 열린 자유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모전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전공을 살리기에 적절하고 친구들과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공모전 참여 모집을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상담심리학과 학생인 저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전공지식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뿌듯하면서 잘 해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어 자유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③ 공모전에 참가하며 좋았던 경험 혹은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상담심리학과 전공생으로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뜻깊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나왔던 기발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활력소가 되어 즐겁고 활기차게 공모전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어려웠던 점도 많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집단역동이 잘 일어날지, 규칙이나 제한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두어야 할지,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니 그런 어려움도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④ 다음번에 이와 같은 공모전이 개최된다면 또 참가할 의향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에도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할 때 대상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아쉽게 장려상을 받았고 팀원들과 함께 패인을 분석하며 다음을 기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실현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고, 생각한 것을 구체적인 기획서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이 많아짐에 따라 학생상담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많은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하던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제공하여 각자 집에서도 원활한 상담 프로그램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전통놀이 프로그램'의 경우 제기와 요가 매트를, '사포 협동화 프로그램'의 경우 사포, 크레파스, 물티슈를 제공한다. '그림 치료(명화 페인팅)프로그램'은 DIY 페인팅 set를, '신생아 모자 뜨기 프로그램'의 경우 뜨개질과 바늘을, '오늘은 내가 요리왕 프로그램'의 경우 밀키트를 제공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재료를 받고 안내문을 보고 완성 시킨 후 줌(ZOOM)을 통해 리더의 지도에 따라 결과물을 소개하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진행된다.

'사포 협동화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영어영문학부 19학번 민00

① 어떤 주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지 소개와 느낀 점 부탁드려요!

제공받은 (그림의 일부가 그려진) 사포와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맞춰보는 사포 협동화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포 표면이 거칠어서 제 생각대로 그림이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흐름에 맡기며 나름대로 색을 칠해가니 새로운 작품이 되었고 이를 통해 시험기간에 지친 마음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무튀튀했던 사포가 알록달록 채워지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해졌고 재즈음악을 틀고 하니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레파스를 만져보는 것도 오랜만이고 항상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해서 따로 시간 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는데 경험해보니까 굳이 잘 그리지 않아도 본인이 즐길 수만 있다면 그 활동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② 이번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하며 좋았던 혹은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가장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고, 지인들과의 만남도 줄어서 집에 있는 내내 울적하거나 외로운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소중하고 즐거웠습니다.

③ 다음번에 이와 같은 비대면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면 또 참가할 의향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에도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다. 교내의 흥미롭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대면 프로그램과 같은 진행으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왕 프로그램' 참가자 후기
환경디자인원예학과 19학번 이경현

해당 프로그램은 밀키트를 집으로 배송해 주어, 소중한 사람들과 요리를 만들어 나눠먹고 이를 공유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어묵 우동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평소에도 요리를 많이 하지만 밀키트를 사용해 해본 적이 별로 없기에 퀄리티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았는데, 의외로 맛있어 신기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나눠먹고, 이에 대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른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습니다.

글로컬 인재로 레벨 UP!

글로컬역량강화 프로그램 (토익)

취업 시장에 한파가 불어온 지도 오래되었고, 취업을 위한 소위 '스펙'의 요구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스펙으로 여겨지고 있는 토익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특히, 토익은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도 주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학생들과 구직자들의 토익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외부 사설 학원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될 때 비용이 만만찮게 드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우리 학교에서 주관하는 글로컬 영어 과목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토익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는 교양 교과목으로 학교에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교내에서 우수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컬 영어 과목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필수교양으로 듣게 되는 과목으로서, 레벨테스트를 통해 분반이 결정되며 특정 레벨의 학생들에게 토익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계발할 수 있다. MVP형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우리학교의 교육 방향으로 비추어 보면, 이 글로컬역량강화 영어 교육은 Mission, Vision, Passion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가 일상과 사회 전반에 걸친 필수적인 영어 표현을 기초로 하여 출제되는 시험인 만큼 이 교육의 효과는 사회 진출에 앞서 미리 준비된 글로컬 인재를 키우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글로컬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세계 공용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을 높인다면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의 역량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해나가는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에서 취업 시 높은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외사업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력으로서 해외 지사 파견 등도 함께 고려해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글로컬 역량 강화를 위한 토익 수업은 토익 점수의 향상 외에도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 사회에 진출하기 전, 우리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계발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해나가는 학우들의 열정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빛이 난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또 본인의 자아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삼육인이 되길 기대해본다.

끝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느꼈던 생각과 노력했던 일화를 들으며, 앞으로 글로컬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조윤아(영어영문학과, 20학번)

Q. 본 프로그램을 통해 토익 점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처음 모의 토익을 봤을 때는 700점 대가 나왔는데, 한 학기 동안 수강한 후 모의 토익 점수가 800점대 중반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확실히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토익 문제의 유형과 기출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나니 조금 더 향상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이 시중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어느 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토익 강의와 관련하여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강사님들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강사님들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주 범하는 실수나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를 잘 집어주십니다. 필요한 추가 자료나 궁금한 점은 강사님께 바로 요청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비를 내고 배우는 시중 학원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Q.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토익을 치러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놓쳤거나 부족하다 느껴지는 내용은 별도로 YBM사이트에서 강의를 수강하며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향후 수강할 학생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또는 바라는 점(각오) 등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미리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수강 기간 동안에는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모의 토익으로 보기 때문에, 타 과목과 달리 '벼락치기'가 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추후에 대면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저 또한 남은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남의정(영어영문학과, 20학번)

Q. 본 프로그램을 통해 토익 점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실시되는 모의 토익을 응시한 결과 점수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이 시중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어느 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A. 비대면으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대면수업의 이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강사님들의 관심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강의가 진행되는 시중 학원과 달리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로 진행되어 학습 효과가 올라갑니다. 또한, 모르는 학생들이 아닌 같은 과 학생들과 진행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과 동기들과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함께 모르는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Q.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수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강사님께서 교재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도 충분히 제공해주어 토익 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향후 수강할 학생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또는 바라는 점(각오) 등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강의를 수강하면서 예/복습을 철저히 하고 강사님께 자주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의를 수강한 시간이 무의미할 수도 있어 저는 강의를 수강하기 전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수강한 이후에는 강사님이 중요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을 위주로 교재를 읽으며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또한, 모르는 문제는 바로바로 강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깨달음도 빠르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